

대조적 관점에서 본 한국 수어의 이접 등위구문*

전혜원^{1,**} · 이선혜^{1,***} · 장세은^{2,****} · 고인경^{3,****} ·

윤병천^{4,****} · 조참훈^{5,****} · 김종복^{6,****}

(¹부경대학교 · ²한국해양대학교 · ³나사렛대학교 ·

⁴조선대학교 · ⁵중국 서남대학교, ⁶경희대학교)

Jeon, Haewon; Lee, Seonhye; Jhang, Se-Eun; Koh, Inkyung; Yoon, Byeongcheon; Jo, Charmhun & Kim, Jong-Bok. (2023). Disjunctive coordination in Korean sign language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31(4), 197-219. Human language uniquely exhibits infinite generativity, a trait shared by both spoken and sign languages. However, their realization differs significantly. This study examines the linguistic parallels and contrasts between spoken and sign languages, particularly focusing on disjunctive coordination. While English utilizes consistent lexical items and sentence structures for disjunctive coordination, it can express alternative questions, polar questions, and three semantic interpretations: alternative question, exclusive disjunction, and inclusive disjunction. This multiplicity of interpretations from a single conjunction presents a linguistic conundrum. Our research delves into the distinct roles of manual signs and non-manual markers (NMMs) in Korean Sign Language (KSL) and American Sign Language (ASL), emphasizing their linguistic functionalities. In English, these interpretations are clarified through intonation, whereas in Korean, the usage of the disjunctive coordinator aids in disambiguation. For ASL, Davidson (2013) notes that disjunction can be conveyed solely through NMMs, designated as COORD-SHIFT and COORD-L. In KSL, the differential application of coordinate markers and NMMs plays a pivotal role in resolving ambiguity in disjunctive coordination. The paper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C2A04 093295). 본고는 2023년 11월 18일 대한언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제1저자

*** 교신저자

**** 공동저자

culminates with a comprehensive table summarizing disjunction in Korean, English, KSL, and ASL, highlighting their respective functions. We also propos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in this field.

주제어(Key Words): 한국 수어(Korean Sign Language), 수화언어(sign languages), 이접 등위구문(disjunctive coordination), 선택의문문(alternative questions), 배타적 이접(exclusive disjunction), 포괄적 이접(inclusive disjunction), 비수지 표지(non-manual markers)

1. 머리말

등위구문(coordination)¹⁾은 두 개 이상의 동일한 유형의 요소가 더 큰 요소로 결합되지 만 여전히 동일한 의미 관계를 갖는 구문 구조(syntactic construction)를 말한다. 하지만 등 위구문 중 영어의 이접 등위구문(disjunction)²⁾은 동일한 통사체(syntactic object)로 구성되 나 그 해석에 있어 중의성(ambiguity)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다.

(1) Is Marcia allergic to dairy or soy? (Pruitt & Roelofsen, 2013)

(1)에서 *dairy or soy* 구에서 두 가지 이접되는 요소들인 *dairy*와 *soy*를 둘 다 강조하고 끝을 하강 억양으로 할 경우, Marcia가 유제품과 콩 중 어느 것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묻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선택의문문(Alternative Question)이라고 한다. 반면에 두 이접 요소들을 특히 강조하지 않고 문장 끝에서 상승 억양으로 발화되면, 일반적으로 Marcia가 유제품과 콩 중 어느 하나이라도 알레르기가 있는지 묻는 것으로 판정의문문(Yes/No Question)으로 해석된다. 영어는 이와 같이 운율(prosody)을 통해 다양한 정보 구조(information structure)를 전달할 수 있다. 동일한 통사체로 구성된 문장이 각기 다른 해석을 가진다는 것은 언어학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이다.

의미론(Semantics)의 관점에서는 이접되는 요소는 배타적(exclusive)이거나 포괄적(inclusive)

-
- 1) "The term coordination refers to syntactic constructions in which two or more units of the same type are combined into a larger unit and still have the same semantic relations with other surrounding elements." (Haspelmath, 2007, p. 1)
 - 2) 등위구문의 종류에는 아래와 같이 순접(conjunction), 이접(disjunction), 역접(adversative coordination)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접구문만 다룬다.
 - (i) (conjunction) Snow White ate and drank.
 - (ii) (disjunction) She was a countess or a princess.
 - (iii) (adversative coordination) The dwarfs were ugly but kind. (Haspelmath, 2007, p. 2)

인 해석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Haspelmath(2007)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차이점은 참과 거짓의 진리값에 의해 정의되는데, 배타적 이접(Exclusive Disjunction)은 두 명제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두 명제가 모두 참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반면, 포괄적 이접(Inclusive Disjunction)은 하나 또는 둘 다 참인 경우 그 진리값이 참이라고 했다. Rooth and Partee (1982)는 등위접속사 *or* 은 영어의 이접 등위구문에서 작용역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scope bearing element)임을 제안하며, 이에 따라 Larson(1985)은 이접구문에서 이접 요소와의 관계에 따라 배타적 이접, 포괄적 이접 그리고 선택에 해당하는 세 가지 해석으로 분류하였다.

or 이라는 단일 등위접속요소로 인해 이접 등위구문이 형성되고 동일한 문장에서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한 영어의 이접 등위구문과 달리, 한국어의 경우 선택과 이접에 각각 다른 등위접속요소가 사용되어 표면적으로 동일한 문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 (2) a. 커피 마실래, 홍차 마실래? (“하나를 골라.”)
- b. 커피나 홍차 마실래? (“무언가 마실 것을 줄까?”) (이의종 & 박진호, 2023)

이의종과 박진호(2023)의 연구에서 한국어의 이접 등위구문 중 선택의문문은 (2a)처럼 등위접속요소를 사용하지 않는 무접속사 등위(asyndetic coordination)³⁾에 해당하며 명제를 단순 나열하여 선택의문문의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판정의문문의 경우 ‘-나’라는 등위접속요소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한국어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영어의 이접구문의 경우 Pruitt and Roelofsen (2013)은 운율-의미 사상(mapping)의 관점에서 선택의문문과 이접의 판정의문문 사이에 운율적인 차이가 분명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소리언어의 이접구문은 유형론적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수화언어의 경우는 이접구문이 보이는 중의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Aboh et al.(2005)의 연구에 따르면 인도파키스탄 수어(IPSL)에서는 눈썹을 내리는 것으로 일반적인 의문문을 표현하는 것과 달리 턱을 치켜들고 고개를 앞으로 내미는 동작과 함께 눈썹을 치켜드는 것으로 의문사 의문문을 표시한다고 한다. Van Herreweghe and Vermeerbergen(2006)에서는 플랑드르 수어에서 판정의문문과 일반 의문사 의문문에 수반되는 비수지 표지(non-manual markers, 이하 NMMs)가 각기 다름을 밝혔다. 고인경 외(2023)의 연구에서는 한국 수어에서 서술어 선택(predicate choice) 접속 수어와 논항선택

3) Haspelmath(2007)는 등위접속구문에서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등위접속요소(an overt coordinator)의 유무에 따라 접속사 등위(syndetic coordination)와 무접속사 등위(asyndetic coordination)로 구분되는데, 영어의 *or*처럼 이접등위요소가 드러나는 경우를 접속사 등위로, 한국어의 선택의문문처럼 이접등위요소가 없는 경우 명제를 단순 나열하는데, 이 명제 나열이 연결 고리(linking device)가 되며 이런 경우를 무접속사 등위라고 분류하였다. 다음은 무접속사 등위접속구문의 예이다.

I came, I saw, I conquered. (Mauri, 2008, p. 60)

(argument choice) 접속 수어에서는 hd(head down; 머리 숙이기)와 ht(head tilt; 머리 기울기)의 각기 다른 NMMs⁴⁾가 나타남을 보인 바 있다.

Pfau and Quer(2010)는 영어 이접구문에서 마지막 음높이 유형(pitch contour)이 가장 유용한 정보를 주는 운율적 특징임을 밝혔는데, 문장 끝에 내림조를 가진 이접 의문문은 일반적으로 선택의문문으로 해석되는 반면, 끝음이 올림조인 이접 의문문은 일반적으로 판정 의문문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한다. 게다가, 그들은 수화언어에서 NMMs의 문법적 기능과 음운적 역할에 관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Milković and Radošević(2021)은 크로아티아 수어(HZJ)에서 나타나는 NMMs가 음성(phonological), 형태(morphological), 통사(syntactic) 그리고 화용(pragmatic)의 관점에서 모두 기능하고 있음을 밝혔다.

수화언어에 대한 여러 오해들 중 하나는 수어는 '손으로 하는 언어'라는 오해, 즉, 수어 어휘와 형태적으로나 구문적으로 복잡한 구조가 전적으로 손으로만 표현된다는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수화인들은 의사소통을 할 때 서로의 손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문법 정보가 얼굴에 나타나는 비수지를 통해 인코딩되므로 의사를 전달할 때 얼굴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고는 영어와 한국어의 이접 등위구문에 중점을 두며 이 구문을 표현하는 수화언어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알아보고, 이접 등위구문에서 나타나는 소리언어의 현상을 비교 대조 연구함으로써 인간 언어의 이접 관계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언어학, 특히 구문론과 의미론 분야에서 수화언어의 고유한 구조와 기능을 밝히고, 이를 통해 인간 언어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수화언어와 소리언어 간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이 갖는 포괄적인 언어 이론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수화언어의 구조적 특징과 의사소통 매커니즘에 대한 이해는 한국 수어(Korean Sign Language)를 배우는 학습자들과 수화 통역사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더 효과적인 교육 전략과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국 수어의 언어학적인 교육과 관련된 교수법을 개선하고 교재를 개발하는 데 이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는 다문화 및 다언어적 교육 환경에서 수화언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포함한 포괄적인 교육 정책과 실천을 촉진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

-
- 4)

<u>hd</u>	
<u>ht left</u>	<u>ht right</u>

(i) a. 수어문장: <나> <남다> <아니면> <가다> <마음대로>
 '나는 남아도 되고 (또는)가도 되.'

<u>ht left</u>	<u>ht right</u>
----------------	-----------------

b. 수어문장: <나> <택시> <버스> <둘중선택> <마음대로>
 '나는 택시 또는 버스 다 괜찮아.' (고인경 외, 2023)

에서 다루는 이 연구가 언어학적 이론의 발전과 다양한 언어 및 문화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간언어에서 소리와 의미는 일 대 일의 대응관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하나의 소리가 여러 개의 의미 기능을 가질 때 우리는 중의성(ambiguity)이 나타난다고 한다. 소리언어에서 영어 이접구문과 선택의문문을 구분하는 언어적 장치로 억양이 사용되는데, 수화언어에서는 개별 수지 외에 영어의 억양과 같은 운율적 표지와 유사하게 NMMs를 사용하여 의미 차이를 나타낸다. 한국 수어의 이접 등위구문에서는 어떠한 NMMs가 나타나는지를 밝혀내고, 선택 혹은 이접의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각각의 비수지 표지가 존재한다면, 이는 수어 문법의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겠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1절 머리말에서 등위구문과 이접 등위구문의 일반적인 정의를 소개하고 배타적 이접(exclusive disjunction), 포괄적 이접(inclusive disjunction) 그리고 선택(alternative question)의 세 가지 유형을 소개한다. 제 2절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의 이접 등위구문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선택과 이접이라는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무엇을 활용하는지를 살펴보고 제 3절에서는 수화언어에서 수지 외에 의미를 전달하는 한 요소인 NMMs의 역할을 살펴보고 특히 이접 등위구문에서 이접현상을 나타내는 NMMs가 각 언어마다 동일인지 상이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 4절에서는 이접 등위구문을 분석하기 위해 제시한 한국어 예문을 바탕으로 한국 수어에서의 이접 등위구문이 어떤 구조로 나타나는지를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제 5절에서는 본고의 전체 논의를 정리하고 이 연구의 학문적 의의와 교육적 함의를 언급하며 결론을 맺기로 한다.

2. 소리언어에서의 이접 등위구문

Rooth and Partee(1982)는 등위접속사 *or*은 영어의 이접 등위구문에서 작용역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scope bearing element)임을 제안하며, 이에 따라 Larson(1985)은 이접 구문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 (3) Mary is looking for a maid or a cook.
 - a. Mary is looking for ((a maid) or (a cook)).
 - b. for some x, a maid or a cook, Mary is looking for x.
 - c. Mary is looking for (a maid) or Mary is looking for (a cook).

(Larson, 1985, p. 218)

(3)의 문장은 이접된 명사구의 관계에 따라서 표면적으로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한다. 첫째, 배타적 이접에 해당하는 a de dicto reading(대언해석)은 Mary가 찾고 있는 사람이 하인(any individual x)인데, 그가 a maid이거나 혹은 a cook이며(x is a maid or x is a cook), 사실상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는 상황(I don't know which)도 포함된다. 둘째, 포괄적 이접에 해당하는 a de re reading(대물해석)은 (3b)로 표현되며 Mary가 찾고 있는 이가 a maid이거나 a cook, 아니면 둘 다를 의미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선택 의문문에 해당하는 해석은 심층구조(deep structure)가 (3c)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Larson(1985)은 영어의 이접구문들은 심층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여 이접 등위접속사인 *or*의 영역에 관해 Rooth and Partee(1982)가 제안한 이접에 대한 의미론 모델과의 연결을 시도했다.

또한, Meertens(2019)와 Dayal(2016)은 선택의문문(Alternative Question)과 이접의 판정 의문문(Yes/No Question)을 명확히 구분하는 요소는 운율이라고 주장하며 이접의 관계에 운율이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4) Do you want [tea or coffee]? [↗]

a. Yes, please (tea/coffee/either one/both).

b. No, thanks (neither).

(Dayal, 2016, p. 259)

(5) Do you want [tea]F or [coffee]F? [↘]

a. #Yes, please/ #No, thanks.

b. Tea/ Coffee/ #both/ #neither.

(Dayal, 2016, p. 259)

(4)와 같이 첫 번째 이접요소에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없고 끝음에 올림조 경계 음조가 있는 의문문은 이접의 판정의문문으로 포괄적 이접에 해당한다. 또한, Bartels(1999), Roelofsen and van Gool(2010) 그리고 Biezma and Rawlins(2012)의 연구에서 선택의문문은 (5)에서와 같이 각 이접요소에 대한 음높이 강세와 끝음의 내림조 경계 음조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Han and Romero(2004b)는 이접 의문문에서 나타나는 초점 억양은 두 가지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즉, 판정의문문의 해석은 이접되는 어구들에 중립적 억양(neutral intonation)을 제시하는 반면에, 선택의문문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각 이접요소에 초점 강세를 줌으로써 적절한 해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Quirk et al., (1985), Aloni and van Rooij(2002), Romero and Han(2003), Han and Romero(2004a), Beck and Kim(2006), Roelofsen and Gool(2010), Hamzah(2011), Biezma and Rawlins(2012), Truckenbrodt(2013), and Pruitt and Roelofsen(2013)의 연구와 그 뜻을 함께한다.

Lee(1995)에서는 영어가 배타적 이접과 포괄적 이접을 모두 표현하는 *or*를 가진 것에 비해, 한국어에서는 아래 (6)과 같이 포괄적 이접은 ‘- 이나’로, 배타적 이접은 ‘아니면’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 (6) a. 메리 아니면 빌이 왔다. ‘Mary or Bill came. (but not both)’
 b. 메리나 빌이 왔다. ‘Mary or Bill came.’ (Lee, 1995)

또한, 이의종과 박진호(2023)의 한국어 이접 구조와 선택의문문 구조에 대한 연구에서, 선택의문문에서 열거되는 명제들은 공유하는 성분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복수의 명제가 대부분의 성분을 공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래 (7)에서 볼 수 있듯이 공유되는 것은 항(term)인 경우 혹은 술어(predicate)인 경우로 이때에 오직 하나의 성분에서만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 (7) a. 내가 그리로 갈까, 네가 이리로 올래?
 b. 커피 마실래, 홍차 마실래?
 c. 밥, 식탁에서 먹을래, 침대에서 먹을래?
 d. 제가 이 놈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로마시대 검투사가 상대를 제압한 뒤 황제에게) (이의종 & 박진호, 2023)

(7a)는 공유하는 성분이 없이 두 명제가 구성하는 선택의문문의 예이다. (7b)는 논항(커피/홍차)에 차이를 보이는 예이고, (7c)는 부가어(식탁에서/침대에서)에서 차이를 보이는 예이다. 마지막으로 (7d)는 술어(죽일까요-살릴까요)에 차이를 보이는 예이다. 본 절에서는 소리언어 중 영어와 한국어의 이접구문의 종류와 특성을 알아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수화언어에서의 이접 등위구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수화언어에서의 이접 등위구문

Zorzi(2018), Hartmann et al.(2021)의 연구에 따르면, 수어에서도 등위구문은 소리언어와 마찬가지로 순접, 이접 그리고 역접 등위구문이 존재하며, NP, VP, TP 또는 CP가 될 수 있는 두 개 이상의 구성 요소의 결합을 포함하며 이러한 요소는 등위접속요소로 명시적으로 연결하거나 혹은 명제의 단순 나열로 나타난다. Zeshan(2004), Tang and Lau(2012), Davidson(2013) 등은 수어에서도 이접구문이 배타적이거나 포괄적 이접으로 해석되는 중의성을 가지며, 이에 사용되는 손으로 하는 명시적 수어 어휘인 수지표지(manual)와 얼굴, 머리와 몸통에 나타나는 표지인 NMMs등의 사용을 연구하여 NMMs가 가지는 언어 기능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Zeshan(2004)에 따르면 수어의 판정의문문은 주로 비수지 표지가 사용되고 의문사 의문문에서 수어는 주로 비수지 표지와 함께 내용 수어 어휘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내용어(의문사)는 문장의 처음에 오거나, 문장 끝에 오거나 둘 다(복사하기/반복하기; copying/

doubling)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수어(ASL), 영국 수어(BSL), 네덜란드 수어(NGT) 및 스웨덴 수어(SSL)는 모두 '이마 올리기(brows up)' 및 '고개 앞으로 내밀기(head forward)'를 극성(polarity)을 나타내는 NMMs로 사용하고 '이마 내리기(brows down)'를 기본적인 내용어(의문사) NMMs로 사용한다. 또한, Wilbur(1991)와 Wilbur(1994a)에 따르면 '눈 깜박임' 같은 NMMs는 운율 표지로 사용된다고 한다. Wilbur and Patschke(1998)는 의미적이고 화용적인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 숙이기(lean)를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즉, '앞으로 숙이기'를 사용하여 포괄/단언[주장]을 나타내고 제외[배타]/거절[반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상체를 뒤로 젖히기'를 표현하는데, 수어에서 NMMs의 사용은 문법 기능 뿐 아니라 의미 화용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한다.

Zeshan(2004)은 수어도 소리언어처럼 선택의문문과 판정의문문으로 해석의 중의성이 포착되는데, 소리언어에서 판정의문문은 억양, 의문사, 구성요소의 어순 변화나 반복사용의 방법으로 표시될 수 있는 반면, 수어에서는 수지 표지와 NMMs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Zeshan(2004)은 '눈썹 올리기', '눈을 크게 뜨기', '청자와 눈맞추기', '고개를 앞으로 숙이기'나 '몸을 앞으로 숙인 자세 취하기'를 전형적인 NMMs로 식별한다. Van Herreweghe and Vermeerbergen(2006)의 연구는 플랑드르 수어의 판정의문문과 의문사 의문문에 수반되는 NMMs가 다르게 사용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판정의문문의 경우에는 눈썹을 올리고 청자를 계속 응시하고 가끔 턱을 위로나 앞으로 내미는 형태의 NMMs를 사용하는 반면에 의문사 의문문은 눈썹을 끌어 내리고 종종 머리를 한 쪽으로 기울이거나 턱을 아래로 내리는 NMMs를 사용한다.

범언어적으로, 수지표지와 NMMs는 다양한 유형의 등위구문을 표현하고 그 중의성을 표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Davidson(2013)은 미국 수어의 경우 운율과 어휘 단서(lexical cues)가 이러한 중의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Wilbur(1994), Herrmann(2010), Pfau and Quer(2010)는 음운적 휴지(prosodic break)가 주로 '눈 깜박임(eye blinking)'과 같은 NMMs로 나타나며 이는 구성성분(constituency)이나 절의 경계(clause boundaries)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8) NGT

$\frac{\text{bl-3a}}{\text{MOTHER IX}_{3a} \text{ MARKET IX}_{\text{left}} \text{ GO}_{\text{left}} \text{ SON IX}_{3b} \text{ FRIEND IX}_{\text{right}} \text{ VISIT}_{\text{right}} \text{ bl-3b}}$
 'The mother goes to the market (and) her son visits a friend.' (Pfau, 2016, p. 165)

(9) HKSL

$\frac{\text{hn+bt right}}{\text{IX1 GO-TO BEIJING, (pro) TAKE-A-PLANE, TAKE-A-TRAIN. hn+bt left}}$
 'I am going to Beijing. I will take a plane or a train.'

(Tang & Lau, 2012, p. 343)

(8)과 (9)에서는 각각 네델란드 수어(NGT)와 홍콩 수어(HKSL)의 예를 통해 모두 명시적 수지 접속사가 사용되진 않지만, 결정적으로 접속사에는 각 접속요소를 넘는 영역을 나타내는 비수지 표지가 동반되었음을 보인다. (8)에서의 순접 등위구문에서 이것은 각 접속요소의 각 주어에 대해 설정된 수어 공간의 위치를 향해 몸이 기울어지는 것(bl; body lean)이다. (9)의 이접 등위구문에서는 단일 수어들(single signs)로 구성된 두 개의 접속요소가 고개 끄덕임(hn; head nod)과 수어 공간의 반대편으로 몸을 돌림(bt; body turn)이라는 비수지 표지로 나타난다.

Jantunen(2016)은 핀란드 수어(FinSL)에서는 이접 등위구문을 주로 수지로 표현하기 때문에 NMMs만을 사용하는 것은 순접 등위구문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핀란드 수어는 몸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흔들며 상체 위치를 바꾸면서 주로 수지 표지인 OR을 사용하여 이접 등위구문을 나타낸다. 또한, 영국 수어(BSL)와 미국 수어(ASL)에서는 명시적인 표지로 수어 어휘 OR을 쓰거나 손가락으로 O-R의 철자를 보여줘서 이접 등위구문을 표현한다. 미국 수어의 경우, Davidson(2013)은 그림 1과 같이 몸통의 움직임으로 인해 COORD-SHIFT로 주해되는 NMMs만을 사용하거나 COORD-L로 표기되는 목록 부표(list buoys)를 사용하여 이접 등위구문을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췌려보기(squint)'와 '입술 깨물기(bit lip)'와 같은 NMMs는 이접 해석을 나타내지만, 순접 등위구문에서는 '중립적인 눈썹(neutral eyebrow)'과 '고개 끄덕이기(head nod)'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그러나, NMMs만으로는 중의성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문장의 끝에 추가 요소들이 덧붙여서 표현이 된다.



그림 1. 미국 수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등위접속 표지
(Davidson, 2013, p. 6-10 Figure 참조)

(10) ASL

a. ?[POSSa PARENTS WILL BUY POSSa CAR]b COORD-SHIFT [IXa WILL TRAVEL]c?

‘Will her parents buy her car, or will she travel?’

b. [POSSa PARENTS WILL BUY POSSa CAR]b COORD-SHIFT [IXa WILL TRAVEL]c, WHICH?

‘Will her parents buy her car, or will she travel?’

- c. [POSSa PARENTS WILL BUY POSSa CAR]b **COORD-SHIFT** [IXa WILL TRAVEL]c, (**DON'T-KNOW WHICH**)
 'Her parents will buy her car or she will travel, I'm not sure which.'
- d. [POSSa PARENTS WILL BUY POSSa CAR]b **COORD-SHIFT** [IXa WILL TRAVEL]c, (**MAYBE BOTH**)
 'Her parents will buy her car or she will travel, maybe both.'
- (Davidson, 2013, p. 10)

(10a)처럼 비수지 표지인 COORD-SHIFT만을 사용하면 중의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장의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어 (10b)에서는 WHICH를 사용하여 포괄적 이접도 아니고 배타적 이접도 아닌 두 사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문문임을 나타낸다. 또한, (10c)는 문장의 끝에 DON'T-KNOW WHICH라는 수어 어휘들이 추가되어 배타적 이접으로 해석되어 '그녀의 부모님이 그녀에게 차를 사 줄 것인지 아니면 그녀가 여행을 떠날 것인지 어느 것이 사실인지 모르겠다'는 의미로 두 명제 중에 하나만이 사실임을 나타내고, (10d)는 마찬가지로 문장의 끝에 MAYBE BOTH라는 수어 어휘를 덧붙여서 '그녀의 부모님이 그녀에게 차를 사 줄 것인지, 그녀가 여행을 떠날 것인지 아마도 두 명제 모두 사실일 것이다'는 의미인 포괄적 이접이 된다.

이와 달리 홍콩 수어(HKSL)에서는 순접과 이접 관계에서 다른 NMMs가 사용된다.⁵⁾ 순접 등위구문에서는 고개 끄덕이기만 사용되는 반면, 이접 등위구문에서는 고개 끄덕이기(head nod)와 고개 및 몸 돌리기(body turns)를 같이 사용한다. 또한 (11)에서 볼 수 있듯이 EITHER와 같은 어휘 단서가 사용되기도 한다.

(11) HKSL

	bl	bl
		<u>hn+bt right</u>
IX1 GO-TO BEIJING, (pro1) TAKE-A-PLANE,		
	bl bl	bl
		<u>hn+bt left</u>
TAKE-A-TRAIN, EITHER DOESN'T-MATTER.		
'I am going to Beijing. I will take a plane or take a train. Either way, it doesn't matter.'		
		(Tang & Lau, 2012, p. 343)

5) Sandler(1999a,b)는 네델란드 수어(NGT)에서 NMMs가 운율 영역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서라고 주장한다. NMMs는 음운 구(PhonP)와 억양 구(IntP) 경계에서 체계적으로 변화하고 계층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통사 구문과 운율 구문 간의 관계에 대해서 통사적 비수지 표지는 또한 운율 영역 표지로 기능할 수도 있다.

수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의문문은 뚜렷한 눈썹 위치로 표시된다(Zeshan, 2004b). 일반적으로 Yes/No 의문문에서는 눈썹이 올라간다(re). 또한, 머리와 어깨가 앞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사실, 대부분의 수어에서 비수지 표지는 어순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문문을 다루고 있음을 나타내는 유일한 표시가 된다. 본 절에서는 수화언어에서 NMMs가 의미나 문장 구조 차이를 표현하는데 결정적으로 관여하는 언어적 요소임을 살펴보았다.

- (12) a. %MARY HAVE COORD-L1 [COFFEE] COORD-L2 [TEA]?
 ‘Did Mary have coffee or tea?’
 (Alt. question, can answer: coffee, tea)
- b. MARY HAVE COORD-L1 [COFFEE] COORD-L2 [TEA] COORD-L3 [CHOCOLATE]?
 ‘Did Mary have coffee, tea, or chocolate?’
 (Alt. question, can answer: coffee, tea, chocolate)
- c. MARY HAVE COORD-L1 [COFFEE] COORD-L2 [TEA] COORD-L3 [CHOCOLATE] (DON’T KNOW WHICH).
 ‘Mary had coffee, tea, or chocolate, I’m not sure which.’ (Exclusive Statement)
- d. MARY HAVE COORD-L1 [COFFEE] COORD-L2 [TEA] COORD-L3 [CHOCOLATE], (maybe all).
 ‘Mary had coffee, tea, chocolate, and maybe all.’ (Inclusive Statement)
- (Davidson, 2013, p. 8-9)

위의 (12)에서 볼 수 있듯이 Davidson(2013)은 미국 수어(ASL)에 대한 두 가지 유형의 등위구문 분석을 설명한다. 각 접속사 앞에 있는 수지 접속사 COORD-L(은 “목록”)이 순접 등위와 이접 등위를 모두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며, Davidson(2013)이 제공한 예에서 COORD-L은 주로 쓰는 손의 검지를 펴서 잘 쓰지 않는 손의 index L1을 먼저 가리킨 다음 중지 L2를 가리킨다. 범용 등위접속사(COORD)의 포괄적 이접과 배타적 이접 해석은 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수지 표지로 구별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어휘 항목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비수지 표지는 얼굴, 머리, 몸통의 작은 움직임을 포함하며, 이는 별도의 계층에 표기된다. 본 절에서는 수화언어의 이접 등위구문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한국 수어의 이접 등위구문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4. 한국 수어의 이접 등위구문

앞 절에서 Lee(1995)와 이의종과 박진호(2023)의 한국어 이접 등위구문 분석에 따라 선택의문문의 경우는 등위접속표지가 없이 명제만 단순 나열식으로 표현되고, 배타적 이접에는 ‘-아니면’이라는 등위접속표지를 사용하고, 포괄적 이접은 ‘-나’를 사용하여 예문을 구성하여 한국 수어에서 이접 등위구문의 실현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한국어와 한국 수어 이접 등위구문의 해석에 따른 실현 양상 분류

언어	등위접속표지	Alternative Question 선택 의문문	Exclusive Disjunction 배타적 이접	Inclusive Disjunction 포괄적 이접
한국어	Disjunctive Connectives	+/-	+	+
한국 수어	Disjunctive Connectives	+ Conj1 / Conj2	+	+

*Conj1=[둘~넷 (복수)중 하나]/ Conj2 = [둘 중 하나 저울]

위의 표 1에서 보면, 한국어와 한국 수어는 영어 이접 등위구문에서 나타나는 중의성이 포착되며 세 가지 종류(나열식의 선택의문문/배타적 이접/포괄적 이접)의 이접 등위구문이 각각 존재한다. 위의 표 1에서 보면, 한국어에서 영어 *or*에 상응하는 등위접속표지의 실현은 ‘이접어 생략’ ‘-아니면’, ‘-나’의 세 가지 이접어로 나타나며, 해당 이접어는 각각 선택의문문과 배타적 이접, 포괄적 이접의 해석을 갖는다.

한국어의 이접 등위구문과 달리 한국 수어의 이접 등위구문은 등위접속표지의 위치가 등위된 문장의 바로 뒤에 나타나고 WH가 결합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아래 (13)에서와 같이 한국어 이접 등위구문과 NMMs를 제외한 한국 수어 이접 등위구문의 예를 살펴보자.

- (13) a. 축구 할래, 야구 할래? (선택의문문)
 a'. <축구> <야구> <둘~넷 (복수)중 하나> <무엇?> (KSL)
 a". <축구> <야구> <저울> <무엇?> (KSL)
 b. 축구 할래 아니면 축구경기 볼래? (배타적 이접)
 b'. <축구> <참여하다> <PAUSE> <보다> <아니면><무엇?> (KSL)
 c. 축구나 야구를 할래? (포괄적 이접)
 c'. <축구><원하다> <PAUSE><야구><원하다> <PAUSE><원하다><무엇?> (KSL)

(13a)의 선택의문문은 등위접속표지가 나타나지 않고, (13b)는 ‘아니면’이라는 이접 접속사를 사용하여 배타적 이접으로, (13c)는 이접 접속사 ‘-나’로 인해 그 의미가 포괄적 이접으로 해

석된다. 반면에 한국 수어의 선택의문문은 (13a')와 (13a'')에서처럼 두 개의 이접표지인 <둘~넷 (복수)중 하나>와 <저울>로 나타난다. 즉, 한국어 선택의문문의 이접 접속사는 zero 하나만 나타나지만 한국 수어에서는 두 개의 변이형을 가짐을 알 수 있다. (13b)의 배타적 이접의 등위접속표지인 '아니면'을 사용하여 '축구 할래 아니면 축구경기 볼래?'로 별도의 의문사 없이 한국어 배타적 이접 등위구문이 형성된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한국 수어는 <아니면>의 이접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같으나, (13b')처럼 문장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는 의문사로 실현이 된다. (13c)의 포괄적 이접은 이접표지 '-나'로 형성되는데, 배타적 이접을 나타내는 이접표지 '아니면'이 절과 절을 연결하는 형식을 보임에 반해 포괄적 이접의 경우 XP와 XP를 연결하여 이접 등위구문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포괄적 이접은 '축구나 야구를 할래?'로 XP와 XP의 연결로 나타나지만 한국 수어에서는 XP가 아닌 절로 실현이 되는데, (13c')처럼, 즉 두 개의 XP가 각각 <축구><원하다><PAUSE>6)<야구><원하다>, 그리고 이어 문미에 <PAUSE><원하다><무엇>이 실현되어 총 세 개의 절로 표현되었다.

한국어의 이접 접속사는 세 개의 이형태(zero, 아니면, -나)를 가지나, 한국 수어는 네 개의 이형태를 가진다. 위의 표 1에서 분류한대로, 한국어 선택의문문은 등위접속표지의 실현이 선택적임을 알 수 있다. 한국 수어의 이접 등위구문은 세 개의 서로 다른 절이 하나의 이접 등위표지로 연결되거나 WH가 필수적으로 나타난다. 즉, 한국 수어 이접 등위구문은 [절+절]_{문장}+ [WH의문문]_{문장}= [절+절] [Conj+ WHAT/WHO] 형태의 세 절이 한 문장으로 된 등위구문으로 보여진다.

한국수어의 선택의문문이 구 등위구문(Phrasal Coordination)과 절 등위구문(Clausal Coordination)에서 어떤 비수지로 실현되는지 살펴보자. 아래 (14)에서와 같이 고인경 외(2023)에서는 이접등위의 경우 왼쪽과 오른쪽으로 기울어짐(head tilt)하는 NMMs가 제각기 다름을 밝혔다.

(14) 선택의문문

a. 한국 수어 구 등위구문: 축구할래, 야구할래?

<u>ht/left</u>	<u>ht/right</u>	<u>neutral</u>	<u>QNM</u>
<축구>	<야구>	<둘~넷 (복수) 중 하나>	<무엇>?
SOCCER	BASEBALL	or	WHAT (ASL: WHICH)

cf. <저울> 두 개 중 비교하여 하나 골라(저울질하다)

b. 한국 수어 절 등위구문: 축구할래, 축구볼래?

<u>hd</u>	<u>hd</u>	<u>neutral</u>	<u>QNM</u>
<u>left</u>	<u>right</u>	<u>neutral</u>	<u>QNM</u>
<축구>	<참여하다>	<PAUSE>	<보다> (<둘 중 하나>) <무엇>

6) 고인경 외(2023)에서는 KSL 절 등위 구문에서 절과 절 간의 경계(boundary)를 나타내는 요소에 대해 다른 수어의 절 등위구문에서는 눈을 깜박이는 비수지 표지(eb; an eye blink)로 실현되는 반면 KSL에서는 머리숙임(hd; head down)으로 실현되는 현상을 밝혔다.

한국어의 선택의문문은 '축구 할래, 야구 할래?'와 같이 이접어가 생략될 수 있으며, 명제의 단순 나열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한국 수어의 선택의문문은 이접어 생략이라는 동일한 특성을 보이거나 '<축구> <야구> <둘~넷 (복수)중 하나><무엇>' 혹은 '<축구><야구><저울> <무엇>'등으로 실현되어 두 가지 이접어(<둘~넷 (복수)중 하나>와 <저울>)가 나타났다. 한국어의 선택의문문에서 비실현 표지(irrealis marker)인 '-까'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것이 한국 수어의 선택의문문의 접속사 <저울>이라는 이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의 선택의문문은 둘 중 하나 선택이 가능하나 한국 수어에서는 둘에서 넷까지(<둘~넷 (복수)중 하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수형이 존재하여 다섯 이상을 헤아리는 경우에는 모두를 뜻하는 복수형태의 단일 수형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한국어와 한국수어의 배타적 이접과 포괄적 이접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한국수어의 배타적 이접은 아래 (15)와 같다.

(15) 배타적 이접 : 축구 할래 아니면 축구경기 볼래?

hd	hd		
_____left	_____right	_____neutral	_____QNM
<축구>	<참여하다>	<PAUSE>	<보다>
	<아니면>	<무엇>	

가능한 답: 다른 스포츠 종목 참여하거나 볼래.

한국어의 배타적 이접과 같이 한국 수어의 배타적 이접도 절 등위(9)로만 나타나고 <아니

7) 표 1에서 분류한대로 선택의문문의 등위접속표지 실현 유무에서 +/- 로 기재한 것은 선택적(optional)임을 의미하며, 이는 한국어와 한국 수어 모두 asyndetic coordination이라고 분류할 수 있으며, 영어의 or 처럼 이접등위요소가 드러나는 경우를 syndetic coordination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다.

8) Mauri(2008)는 이접구문을 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 분류하였는데, 그 중 하나의 분류 지표가 실현표지 (realis marker)와 비실현 표지(irrealis marker)였다. '비실현 표지'란 가능성, 미래, 불확실성, 질문을 부호화("irrealis markers are defined as all the morphosyntactic means such as adverbs, sentence particles, verbal forms which specifically encode the irrealis value of a given State of Affairs; SoA.(Mauri, 2008, p. 8)해주는데, 영어의 'probably'와 한국어의 '-까'가 여기에 해당한다. Realis and irrealis 명제는 실현가능한 사실에 기반하는지 아니면 실현가능한 잠재적 혹은 가능성 있는 사건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명제라고 하였다(Elliott, 2000, p. 66-67).

(i) 영어의 예

- a. I take the bus or I go by bike. (the SoAs are not overtly marked as irrealis.)
- b. I may take the bus or I may go by bike. (the SoAs are overtly marked as irrealis.)

(ii) 한국어의 예

wuli-ka ka-l-kka-yo? salam-ul ponay-l-kka-yo?
 1pl-NOM go-PRS-Q-POL person-ACC send-PRS-Q-POL
 'Shall we go or shall we send a person?' (Sohn, 1994, p. 122)

- 9) (i) a. 메리 아니면 빌이 왔다. 'Mary or Bill came. (but not both)'
- b. 메리나 빌이 왔다. 'Mary or Bill came.' (Lee, 1995)

면>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 접속사를 사용한다. 그러나, 한국어의 선택의문문과 포괄적 이접을 나타내는 통사 구조가 한국 수어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아래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수어의 포괄적 이접은 한국어와 달리 절 등위구문만 허용된다. 이를 통해서 한국어에서는 접사인 '나'에 상응하는 [(+PAUSE+)<원하다>+<무엇/누구>]로 나타나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원하다>는 접속사라기보다는 아직 동사로 사용되어 선행하는 이접구문에 복사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6) 포괄적 이접: 축구나 야구를 할래?

<u>hd</u>	<u>hd</u>	<u>hd</u>
<u>left</u>	<u>right</u>	<u>neutral</u> QNM
<축구><원하다>	<PAUSE><야구><원하다>	<PAUSE> <원하다> <무엇>

Waters and Sutton-Spence(2005)는 대부분 수화언어에서 등위접속구문에 접속표지가 잘 사용되지 않는데, 영국 수어(BSL)는 접속표지를 사용하는 syntetic한 특성을 보인다고 했다. asyndetic한 특성의 등위접속구문은 그 의미가 순접인지 이접인지 사실상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운율이나 어휘 요소(lexical cues)등이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소리언어에서 중의성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운율이나 어휘요소 등은 바로 수어의 NMMs로 표현된다고 주장하였다. Davidson(2013)은 미국 수어(ASL)의 경우 COORD-SHIFT와 COORD-L의 두 가지 범용접속사와 함께 사용되는 NMMs만으로 이러한 중의성이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NMMs에 대한 이론 연구에서는 통사나 운율 구조와 NMMs의 사용에 관해 밝히고자 한다. Neidle et al.(2000)과 Wilbur and Patschke(1999)에 따르면 모든 문법적 비수지 표지는 문장 구조의 해당 위치에 형태 통사적 자질(예: [+wh], [+top], [+neg])을 문자화(spell-out)한다. 또한, 운율구조는 통사적 구성요소를 반영한다는 Sandler and Lillo-Martin (2006)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어의 문법적 기능이 운율표지의 반영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렇듯, 수어 문장 구조 분석에서 소리 언어와 구별되는 명백한 영역 중 하나는 특정 비수지 표지 사용¹⁰⁾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비수지 표지는 특정 통사 구조와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¹⁰⁾ '아니면'이 주어 NP를 연결하는 경우는 'XP 아니면 XP' 구조가 가능하나, 목적어 NP를 연결하는 '축구를 할래 아니면 경기를 볼래?' 혹은 '축구 아니면 야구를 할래?'의 경우 어색하여 본고에서는 배타적 이접의 경우 '절 아니면 절'의 구조를 갖는다고 분석하였다.

10) 고인경 외(2023)에서 홍콩 수어에서는 순차적인 순접등위(sequential conjunction)인지 동시적인 순접등위(simultaneous conjunction)인지에 따라 NMMs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한국 수어의 등위 구문의 종류에 따라 비수지 표지의 실현양상에 따라 아래의 표를 제시하였다. 한국 수어는 홍콩 수어와 같이 시간 차이를 나타내는 두 가지 종류의 순접 등위를 구별하나 접속수어의 실현 유무와 비수지 표지의 유무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2. 소리언어와 수화언어의 이접 등위구문의 요약

이접구문 종류		Alternative Question 선택의문문	Exclusive Disjunction 배타적 이접	Inclusive Disjunction 포괄적 이접
한국어		Clause, Clause	Clause Conj1 Clause 아니면	XP Conj2 XP -나
한국 수어 (KSL)	구 vs 절	XP XP [Conj1 +WHAT/WHO] XP XP [Conj2 +WHAT/WHO] Clause PAUSE Clause [(Conj1) + WHAT/WHO]	Clause PAUSE Clause [Conj3 +WHAT/WHO]	Clause PAUSE Clause PAUSE [Conj4 +WHAT/WHO] [XP<원하다>]s PAUSE [XP<원하다>]s PAUSE [<원하다>+WHAT/WHO]
	등위 표지	Conj1 =<들~넷 (복수)중 하나> Conj2 =<들 중 하나 저울>	Conj3=<아니면>	Conj4=<원하다>
영어		XP[↗] XP[↘] Clause Conj Clause	[XP Conj XP][↗] Clause Conj Clause	[XP Conj XP][↗] Clause Conj Clause
미국 수어 (ASL)	구 vs 절	Conj1 XP/Clause Conj1 XP/Clause Conj1 XP/Clause XP/Clause Conj1/2 XP/Clause WHICH	Conj1 XP/Clause Conj1 XP/Clause Conj1 XP/Clause (DONT-KNOW WHICH) XP/Clause Conj1/2 XP/Clause (DONT-KNOW WHICH)	Conj1 XP/Clause Conj1 XP/Clause Conj1 XP/Clause (MAYBE ALL) XP/Clause Conj1/2 XP/Clause (MAYBE BOTH)
	등위 표지	Conj1= COORD-L Conj2= COORD-SHIFT	Conj1= COORD-L Conj2= COORD-SHIFT	Conj1= COORD-L Conj2= COORD-SHIFT

지금까지, 한국어의 선택의문문과 포괄적 이접을 나타내는 통사 구조가 한국 수어의 구조와 다르게 나타남을 살펴보았다. 소리언어와 수화언어에서는 이접구문을 나타내는 등위표지의 사용 유무와 비수지의 실현 여부 등에 따라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을 위의 표 2로 정리하여 결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5. 결론

등위접속표지 *or*만을 허용하는 영어 이접 등위구문은 동일한 어휘와 문장구조를 가지지만 그 해석에 있어 중의성이 나타나는데, 이는 언어학의 난제 중 하나이다. *or*을 사용하는 영어 이접 등위구문은 그 운율구조의 상이함에 따라 각각 선택의문문과 판정의문문으로 화자의 의도(Speech Act)가 달리 나타나기도 하고, 명제의 진리값 실현에 따라 선택의문문,

배타적 이접, 그리고 포괄적 이접으로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해진다. 한국어와 한국 수어는 영어 이접 등위구문에서 나타나는 중의성이 모두 포착되며 세 가지 종류(나열식의 선택의 문문/배타적 이접/포괄적 이접)의 이접 등위구문이 각각 존재한다. 한국어에서 영어 *or*에 상응하는 등위접속표지의 실현은 ‘이접어 생략’ ‘아니면’, ‘-나’의 세 가지 이접어로 나타나며, 해당 이접어는 각각 선택의문문과 배타적 이접, 포괄적 이접의 해석을 갖는다. 한국어의 이접 등위구문과 달리 한국 수어의 이접 등위구문은 등위접속표지의 위치가 등위된 문장의 바로 뒤에 나타나고 문미에 WH가 결합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한국어 선택의문문은 이접어가 생략되고 명제를 나열하는 식으로 표현되는데 반해 한국 수어의 경우 두 가지 이접어 <둘~넷 (복수)중 하나>, <저울>로 표현되는 차이를 보였다. 한국어의 배타적 이접은 이접어 ‘아니면’으로 실현되며 절 등위로 나타나는데, 한국 수어의 배타적 이접도 한국어 이접구문과 같이 절 등위로만 나타나고 <아니면>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 접속사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한국어의 선택의문문과 포괄적 이접은 그 통사 구조가 한국 수어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즉, 한국어 포괄적 이접은 ‘축구나 야구를 할래? 처럼 구와 구의 연결인데 반해 한국 수어의 포괄적 이접은 <축구><원하다><PAUSE> <야구><원하다><PAUSE><원하다><무엇>’으로 표현되며, 절 등위구문만 허용하는 차이점을 보인다. 이를 통해서 한국어에서는 접사인 ‘-나’에 상응하는 [(+PAUSE+) <원하다>+<무엇/누구>]로 나타나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원하다>는 접속사라기보다는 아직 동사로 사용되어 선행하는 이접구문에 복사하여 절 등위구문으로 만들어주며 이는 문법화의 한 예로 보인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영어의 이접 등위구문에서는 운율이 중의성을 구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데, 수화언어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도구가 NMMs가 된다. 미국 수어의 NMMs의 사용은 이접 등위구문 중의성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언어장치인데, 한국 수어의 이접 등위구문의 세 가지(선택의문문, 배타적 이접과 포괄적 이접)구조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머리를 숙이는 head down이었다. 이는 절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로 제안되었는데(고인경 외, 2023), 한국어는 구와 구의 등위접속 구조도 허용하는 반면, 한국 수어는 모두 절과 절의 등위접속 구조로 나타난 것에 상응하는 NMMs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한국 수어의 선택의문문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기울어짐(head tilt)의 NMMs가, 포괄적 이접과 배타적 이접의 경우, 몸통을 좌우로 돌리는 것으로 실현되었다. 한국 수어의 세 가지 이접 등위구문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NMMs의 하나인 휴지<PAUSE>인데, 휴지가 구와 구의 연결이 아닌 절과 절의 연결 구조만 허용하는 한국 수어의 이접 구문 형성에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된 논의 내용들로 비추어 볼 때 이 연구의 학문적 의의와 교육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한국 수어에서 이접 등위구문을 다른 언어들과 비교하여 대조 분석함으로써, 수화언어의 복잡한 언어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학문적인 의의를 갖고 언어 현상 및 이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소리언어와 수화언어의 차이를 밝히고, 언어학

이론, 특히 구문론 및 의미론 분야에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소리언어와 수화언어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갖게 되는 인간 언어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탐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언어 교육 정책과 실천에서 수화언어의 언어학적인 가치를 인정하여 한국 수어 학습자들을 위한 더 효과적인 교수 방법론과 교재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적인 함의를 갖는다. 이와 더불어 한국 수어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 및 다언어적 교육 환경에서 다양하고 포괄적인 교육 정책과 교수 접근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인경, 윤병천, 전혜원, 이선혜, 박호민, 장세은. (2023). 코퍼스 기반 한국 수어의 등위구문 연구. 한국 코퍼스 언어학회 가을학술대회 논문집, 연세대학교, pp. 100-118.
- 원성옥 외. (2020). *한국수어 문법 연구*. 국립국어원
- 이의중, 박진호. (2023). 선택의문문과 이접의 관계에 대한언어유형론적 고찰.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48(3), 731-758.
- 이정옥. (2012). 한국 수어의 복합문 실현 특성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boh, E. O., Pfau, R., & Zeshan, U. (2005). When a wh-word is not a wh-word: The case of Indian Sign Language, in T. Bhattacharya, ed., *The Yearbook of South Asian Languages and Linguistics 2005*, pp. 11-43. Berlin: Mouton de Gruyter.
- Aloni, M., & Van Rooij, R. (2002). The dynamics of questions and focus. In *Proceedings of SALT 12*, ed. B. Jackson. Cornell University, CLC Publications.
- Bartels, C. (1999). *The intonation of English statements and questions: a compositional interpretation*. New York: Garland.
- Beck, S., & Kim, S. S. (2006). Intervention effects in alternative questions. *The Journal of Comparative Germanic Linguistics*, 9, 165-208.
- Biezma, M., & Rawlins, K. (2012). Responding to alternative and polar questions. *Linguistics and Philosophy*, 35(5), 3.
- David, P. (1982). Paths and Categorie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MIT.
- Davidson, K. (2013). 'And' or 'or': General use coordination in ASL. *Semantics and Pragmatics*, 6, 4-1.
- Emonds, J. (1976). *A transformational approach to english syntax*, academic press. New York.

- Hamzah, N. J. (2011). A comparative analysis of alternative questions in English and Arabic. *Journal of Al-Qadisiya University*, 14(3), 23-4.
- Han, C. H., & Romero, M. (2004). Disjunction, Focus, and Scope. *Linguistic Inquiry*, 35(2), 179-217.
- Hartmann, K., Pfau, R., & Legeland, I. (2021). Asymmetry and contrast: Coordination in Sign Language of the Netherlands. *Glossa: A Journal of General Linguistics*, 6(1).
- Keyser, S. J., & Postal, P. (1976). *Beginning English Grammar*. Harper & Row, New York.
- Kuhn, N., & Wilbur, R. B. (2006). Interrogative structures in Croatian Sign Language: Polar and content questions. *Sign Language & Linguistics*, 9(1-2), 151-167.
- Lakoff, G., & Stanley, P. (1966). Phrasal Conjunction and Symmetric Predicates, in D. A. Reibel and S. Shane (Eds.), *Modern Studies in English: Readings in Transformational Grammar*.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Larson, R. K. (1985). On the syntax of disjunction scope. *Natural Language & Linguistic Theory*, 3(2), 217-264.
- Meertens, E. (2019). Prosody in disjunctive questions: Introducing class. *University of Pennsylvania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25(1), 21.
- Milković, M., & Radošević, T. (2021). Non-Manual Markers in Croatian Sign Language—a Look at the Current State. *Grazer Linguistische Studien*, 93, 137-159.
- Perniss, P. M., Pfau, R., & Steinbach, M. (Eds.). (2008). *Visible variation: Comparative studies on sign language structure* (Vol. 188). pp. 207-244, Walter de Gruyter.
- Pfau, R. (2006). Visible prosody: spreading and stacking of non-manual markers in sign languages. In *25th West Coast Conf. on Formal Linguistics, Cascadilla Proceedings Project*. USA: Seattle.
- Pfau, R., & Quer, J. (2010). *Nonmanuals: their grammatical and prosodic roles* (p.381-402). na.
- Pruitt, K., & Roelofsen, F. (2013). The interpretation of prosody in disjunctive questions. *Linguistic Inquiry*, 44(4), 632-650.
- Quirk, R., Greenbaum, S., Leech, G., & Svartvik, J.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Roelofsen, F., & Van Gool, S. (2010). Disjunctive questions, intonation, and highlighting. In *Logic, Language and Meaning: Selected Papers from the 17th*

- Amsterdam Colloquium*, ed. M. Aloni, H. Bastiaanse, T. de Jager and K. Schulz, 384-394.
- Romero, M., & Han, C. H. (2003). Focus, ellipsis and the semantics of alternative questions. In *Empirical Issues in Formal Syntax and Semantics*, 291-307.
- Rooth, M., & Partee, B. (1982). 'Conjunction, Type Ambiguity and Wide Scope Or', in D. Flickenger, M. Macken and N. Wiegand (eds.), *Proceedings of the First West Coast Conference on Formal Linguistics*, Linguistics Dept., Stanford University.
- Sandler, W., & Lillo-Martin, D. C. (2006). *Sign language and linguistic universa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Šarac Kuhn, N., & Wilbur, R. B. (2006). Interrogative structures in Croatian Sign Language: Polar and content questions, *Sign Language & Linguistics*, 9(1/2), 151-167.
- Tang, G., & Lau, P. (2012). Coordination and subordination. In Roland Pfau, Markus Steinbach & Bencie Woll (eds.), *Sign language: An international handbook*, 340-365. Berlin: Mouton De Gruyter.
- Van Herreweghe, M., & Vermeerbergen, M. (2006). Interrogatives and Negatives in Flemish Sign Language. in: U. Zeshan, ed., *Interrogative and Negative Constructions in Sign Languages*, pp. 225-256. Nijmegen: Ishara Press.
- Waters, D., & Sutton-Spence, R. (2005). Connectives in British Sign Language. In: *Deaf Worlds*, 21(3), 1-29.
- Wilbur, R. B. (1991). Intonation and focus in American Sign Language. In *ESCOL '90: Eastern States Conference on Linguistics*, Yungkyoon No and Mark Libucha (eds.), 320-331.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 Wilbur, R. B. (1994a). Eyeblinks and ASL phrase structure. *Sign Language Studies*, 84, 221-240.
- Wilbur, R. B., & Patschke, C. (1998). Body leans and marking contrast in ASL. *Journal of Pragmatics*, 30, 275-303.
- Zeshan, U. (2004). Interrogative constructions in sign languages - Crosslinguistic perspectives. *Language*, 80, 7-39.
- Zorzi, G. (2018). Coordination and gapping in Catalan Sign Language (LSC)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at Pompeu Fabra).

전해원

48513 부산시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인문사회경영관(C25동)
인문사회과학동 1027호
부경대학교 강사
전화: 051-629-5371
이메일: hwjeon@pknu.ac.kr

이선헤

48513 부산시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인문사회경영관(C25동)
인문사회과학동 1027호
부경대학교 강사
전화: 051-629-5371
이메일: shlee2022@pknu.ac.kr

장세은

49112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727 한국해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전화: 051-410-4595
이메일: jhang@kmou.ac.kr

고인경

3117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48
나사렛대학교 강사
전화: 041-570-1804
이메일: kohinkyung@naver.com

윤병천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길 146(서석동)
조선대학교 연구원
전화: 062-230-6568
이메일: ybch5778@hanmail.net

조참훈

710 office, College of International Studies, Southwest Univ., 2
Tiansheng RD., Beibei, Chongqing, 400715 China
중국 서남대학교 부교수
전화: 86)17880209501
이메일: jch337@hotmail.com/jch337@swu.edu.cn

김종복

02447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 영어영문과

경희대학교 교수

전화: 02-961-0224

이메일: jongbok@khu.ac.kr

Received on November 30, 2023

Revised version received on December 31, 2023

Accepted on December 31, 2023